무주 마을로 가는 봄 축제

9일~5월 22일까지 6개 읍면 23개 마을서… SNS '축제 속의 축제'도 기대

무주군 '마을로 가는 봄 축제'가 4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개최된다. '마을로 가는 봄 축제'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가 주관하는 것으로, 무주군 6개 읍면 23개 마을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무주읍 앞섬마을에서는 '자전거 트래킹과 복숭아책갈피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사진콘테스트'를 즐길 수 있으며 후도마을에서는 '인성학교'를 진행한다.

무풍면무풍승지권역에서는 '피자 & 팬케이크 만들기, 자전거트래킹, 천연손수건 & 천연비누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설천면 원청마을에서는 '산나물채취와 다래고추장 만들기', 호롱불마을에서는 '고사리체험', 삼도봉권역에서는 봄나물도 캐고 산나물 비빔밥도 맛볼 수 있다.

적상면 서창마을은 '야생화 채취 & 꽃차 만들기, 스몰웨딩 체험, 12간지 흙 놀이'를 준비했으며, 여원(사기점골)에서는 '천연염색 이론과 염색재료채취, 생활용품 만들기, 천연염색 리폼' 등을 진행한다. 또 치목마을에서는 '삼베짜기와 직조짜기, 삼베 편백 향주머니 만들기'를, 내창마을에서는 피자를 만들며 밥상머리예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성도마을에서는 '산야초 효소 & 장아찌 만들기'를, 초리마을에서는 '닭잡기 체험과 맷돌커피, 핸드드립 체험, 머그컵 만들기'를 즐겨볼 수 있다.

안성면 두문마을에서는 '산나물채취 & 불미나리즙 시음', 명천마을에서는 '봄나물 및 미나리 수확, 기체조, 명상'을, 죽장마을에서는 '진달래 화전 만들기, 오미자 효소 차, 오미자청 피클 만들기, 솔다박 사진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진원마을에서는 '장류 알아보기와 청국장 만들기, 반디마차 체험'을 마련하며 외당마을에서는 '소나무 숲 트래킹과 생활목공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한걸음마을은 '사과조청 & 사과고추장 만들기'를, 통안마을에서는 '황토도자기 만들기'를 신무마을에서는 '천마심기 & 캐기'를, 수락마을에서는 '하우스 밭 미나리 채취하기, 텃밭 산나물 뜯기 체험'을 준비한다.

부남면에서는 상굴암마을이 '돌탑 쌓기와 야생화 화분 만들기, 물 수제비 뜨기, 물고기 잡기' 체험을 진행하고, 슬로공동체에서는 '연잎채취와 장물 다리기, 장아찌 담기' 등으로 손님을 맞는다.

올해는 '축제 속의 축제'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읍 전도마을 복사꽃 사진 콘테스트(4월 13~14일)와 설천면 원청마을 산나물축제(4월 28일), 적상면 서창마을 스몰웨딩 & 전시 · 체험(5월 5일) 행사 등으로, 각 마을에서는 SNS 공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방문객이 직접 마을 포토존과 봄 축제 전경, 체험사진 3장을 찍어 본인계정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업로드한 후 현장에서 확인을 받으면 무주 반딧불 농 · 특산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마을만들기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겨우내 마을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을 다진 끝에 드디어 봄 축제의 문을 활짝 연다"라며 "축제 기간 내내 마을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과 군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 프로그램과 전통문화체험, 그리고 시골의 맛까지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을로 가는 축제는 사계절 변화에 따른 마을 특색을 잘 살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소년 영화감독의 꿈을 펼친다

장수군, 백화여고 학생 대상 시네마스쿨 운영

장수군 주민시네마스쿨(주최 전라북도, 주관 장수군)이 백화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 28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달 4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주민시네마스쿨은 지역 내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시키고 영화 · 영상에 관심이 많은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 편집, 제작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원태웅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강사로 나서 백화여고 학생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15회에 걸쳐 7월 말(상반기)까지 영화 · 영상제작 기초과정(영상제작 이론 및 실습)을 공부한다.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하반기 교육에서는 단편영화(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심화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2014년부터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145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작된 작품은 총 17편으로 이 가운데 백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별이 빛나는 밤에(2015)'는 제10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은상'과 '관객심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하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주민시네마스쿨 수강생들에게는 2018 전북사랑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비롯해 2018 전북청소년영화제 등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편의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청소년들의 꿈을 한 뼘 더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주민시네마스쿨을 통해 폭 넓어진 영화에 대한 시각이 주민들 삶에 더 큰 여유를 불어 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농업인 복지 서비스 확대

자녀 학자금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진안군은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여성농업인의 건강 · 문화적 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진안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부터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관, 미용실, 헬스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한 생생카드는 지난해 관내 여성농업인 816명이 신청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1,2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농어업인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던 사업으로, 지난해 12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사업량을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부담을 줄여 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안전공제,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국비 확보 위해 농식품부 방문

장수군 안동환 부군수가 3일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사업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2019년 농촌 정주여건을 위한 농식품부 소관의 사업 확보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장계 · 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국도비68억원), 금덕권역 농촌다움 복원사업 (국도비17억원), 고령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국도비 19억원)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잔여 대상지 장계면과 계북면이 확정될 경우 장수군 7읍면 전체가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을 전망인바, 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이밖에 건의한 고령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확정을 통해 도시민 은퇴자와 귀농인 유치로 인구유입에 기여해 지역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생애주기별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4일 우울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내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OECD 국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은 12.1명, 우리나라는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2.4배로 13년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층의 자살자 수가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우울증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군은 노인우울척도(S-GDS), 성인 · 청소년우울척도(CES-D), 아동 우울척도(CDI) 등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조기 파악하고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통해 1:1 멘토링과 심층상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우울감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우울증 환자로 확진되어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지난해 지역주민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우울증이 우려되는 170명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무주군, 장터 건강증진센터 운영

무주군이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4개 읍면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터 의료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터 의료건강증진센터에서는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환자들에 대한 '내 혈압 · 혈당 숫자알기',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 운동 · 치매상담 및 치매선별 검사, 우울증 검사 등을 실시하며 독거 · 장애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재활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농사철이라 바쁠 때 찾아와 준다니 고마운 마음"이라며 "장날에 꼭 들러서 이것저것 필요한 검사를 한 번 받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무주읍 반딧불장터에서는 매월 첫째 주 장날(1일, 6일장), 무풍면 대덕산장터에서는 둘째 주 장날(3일, 8일장), 설천면 삼도봉장터에서는 셋째 주 장날(2일, 7일장), 안성면 덕유산장터에서는 넷째 주 장날(5일, 10일장)에 운영한다.

김선영 방문보건 담당은 "올해도 장날에 직접 찾아 나선다"라며 "장터활성화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장터 의료 ·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생산 · 유통 품질관리 강화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4월부터 중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목재제품을 생산 · 유통하는 업체이며 단속 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구조용재, 수장용재),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 15개 목재 제품이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시 제품의 규격 · 품질 등이 의심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인증 · 인정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한다.

아울러, 목재제품에 대해 생산 · 수입 · 판매 · 유통하려는 자는 미리 규격 ·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규격 ·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규격 ·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 유통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무주=전문선 기자